

상조의 기준을 제시하다 스스로의 기준을 높여가는 예다함

예다함은 국내 유일의 교직원 복지기관인 한국교직원공제회에서 업계 최대 자본금 500억원을 출자해 설립한 상조회사다. 2023년부터 '예다함의 기준이 상조의 기준, 상조는 예다함'이라는 슬로건을 바탕으로 브랜드 신뢰의 척도를 제시하고 있다. 또 한국교직원공제회의 연대지급보증 및 업계 최대 제1금융권 6개 은행(신한·하나·우리·전북·Sh수협·SC제일)과 지급보증 계약을 체결, 2중 안전망을 구축하고 있으며, 업계 평균 대비 우수한 재무 건전성으로 대한민국 대표 상조 브랜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예다함의 기준이 상조의 기준, 상조는 '예다함'

예다함은 순수 장례서비스에 집중해 스스로의 기준을 지속적으로 높여가고 있다. 합리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장례 진행 후 미사용 품목에 대해 환불 해주는 '페이백(Pay-back) 시스템', 노잣돈 및 수고비 또는 금품 수수 시 고객이 기납입한 금액 100% 환불 및 해당 장례를 무료로 제공하는 '부당행위 보호시스템' 등 체계적인 시스템을 갖췄다. 예다함은 소비자들에게 고품질의 장례서비스 제공을 위해 정기적으로 장례 관련 학과 졸업생 및 국가자격증인 장례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한 인재를 채용하고 있다. 채용 후에도 내부의 일정 기간 수련 과정 이수는 물론, 예다함 교육지원센터의 정기적인 보수교육과 추가 실무교육을 통해 양성된 예다함 장례지도사는 전국 9개 지부 직영망에 배치되어 모든 의전에 표준화된 품격 있는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한다. 이러한 예다함의 소비자 중심, 윤리적 정도경영은 업계 내 부도덕한 관행을 타파하고 상조업계를 혁신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고 있다. 그 결과 예다함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인증하는 소비자중심경영(CCM) 인증을 5회째 획득했다.

어려운 이웃을 따뜻하고 건강하게, '사랑(愛)다함'

예다함은 소비자들로부터 받은 사랑을 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공유 가치 창출(CSV; Creating Shared Value) 프로젝트인 '사랑(愛)다함'을 출범했다. 예다함 전자청약 채널로 가입한 고객의 초회 납입금의 10%와 매월 임직원 급여의 1천원 미만 금액, 그리고 자체 기부금 예산을 적립해 기부금을 조성했다. 해당 기부금은 예다함 홈페이지에 투명하게 공개되고 있다. 또한 복지 사각지대에 있는 입양기관의 어린 생명들과 잠재 빈곤층(노인 1인 가구, 차상위 계층 등)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기 위해 국내 입양 전문 기관인 '성가정 입양원'과 무료 진료 자선의료기관인 '요셉의원'에 기부금을 전달하고 있다. 이 밖에도 모기업인 한국교직원공제회와 함께 저소득 조손(祖孫)가정에 장례를 지원하고 있으며, 소방공무원의 복지증진 지원을 담당하는 복지기관인 대한소방공제회를 통해 순직소방관들의 유가족들에게도 위로금을 전달하고 있다. 앞으로도 예다함은 사람과 사람이 돕는 상조(相助)의 본질을 잃지 않고, 다양한 사회 환원 프로그램들을 지속할 예정이다.

INTERVIEW



곽재환 The-K예다함상조(주) 대표이사

The-K예다함상조가 프리미엄브랜드지수 장례서비스 부문 8년 연속 1위에 선정되어 매우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직 고객 감동을 위해 초심을 잃지 않고, 모든 직원이 정직하게 노력하는 모습을 소비자분들이 신뢰해 주시고 응원해 주신 덕분이라 생각합니다. 예다함은 전 국민이 안심하고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교직원공제회가 출자하여 설립한 상조회사입니다. 예다함은 앞으로도 투명하고 정직한 상조업계의 기준, 업계를 혁신하는 리딩 브랜드로서 참된 본을 보일 것입니다. 또한 예다함은 고객에게 부족함 없는 최상의 의전으로, 온 마음을 다해 마지막 여정을 함께하겠습니다.